

증설

## 『景岳全書』가 朝鮮後期 韓國醫學에 미친 影響에 대한 研究

河基泰\*, 金俊錡\*, 崔達永\*

### ABSTRACT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Jingyuequanshu to Korean Medicine in the late Chosun dynasty.

Ki-Tae Ha\*, June-Ki Kim\*, Dall-Young Choi\*

\* Department of Oriental Path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Jing-Yue Jang(張景岳, 1563~1640), a medical scholar in the late Ming(明) Dynasty wrote many books such as *Leijing*(類經), *Zhilyilu*(質疑錄) and *Jingyuequanshu*(景岳全書). He was also famous for the concept of "Warming and Recuperating(溫補)" and "Syndrome Differentiation Treatment(辨證論治)". *Jingyuequanshu* was written between 1636 and 1640, and first published in 1700. It can be said that the book was imported from Ming Dynasty of China to Chosun(朝鮮) Dynasty, in what is now South Korea, between 1713 and 1724. In eighteenth century, the book was quoted in *Euimunbogam*(醫門寶鑑), *Jejungshinpyun*(濟衆新篇) and *Magwaheotong*(麻科會通). In nineteenth century, the book was quoted in *Euijongsonik*(醫宗損益), *Bangyakhappyun*(方藥合編), *Dongeuisebowon*(東醫壽世保元) and *Euigamjungma*(醫鑑重磨). The number of quoted prescription and thesis during in nineteenth century, is much more than that of eighteenth century. Specifically, there are thirty prescriptions of *Xinfangbazhen*(新方八陣) in *Bangyakhappyun*, and the concept of "Nourishing Yang(扶陽)" in *Euigamjungma* is also based upon Jing-Yue's thesis. This fact shows that we cannot consider the medicine of the late Chosun Dynasty as an abridgement of *Dongeuibogam*(東醫寶鑑). It is also said that the study focusing on medical books imported from China to Korea in this period is related to understanding the medical progress in the late Chosun Dynasty and the medical intercommunic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

Key Word : Jung-Yue Jang, *Jingyuequanshu*, *Xinfangbazhen*, the late Chosun Dynasty, Medical intercommunication

---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 접수: 99. 9. 17    채택: 99. 10. 19    연락처: 최달영 T. 0561-770-2367

## I. 序 論

張景岳(1563~1640)은 明末의 醫學者이며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類經』, 『質疑錄』, 『景岳全書』 등이 있다. 그는 朱丹溪의 “陽有餘陰不足”에 반대하고 “陰有餘陽不足”을 제창하여 濫補學派로 널리 알려졌으며<sup>1)</sup>, 질병의 各門을 ‘論證’과 ‘論治’로 서술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辨證論治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저작 중 『景岳全書』는 六十四卷 二十四集의 綜合醫書로서 韓醫學의 基礎醫學과 臨床醫學 全般을 포괄하고 있으며, 특히 「新方八陣」에 收載된 189首의 處方은 景岳의 理論에 依據하여 創方된 것으로 그의 學問의 特性을 반영하고 있으며 現在까지 多用되고 있다.

19세기의 韓國醫學을 대표하는 醫書로는 『方藥合編』, 『東醫壽世保元』, 『醫鑑重磨』를 들 수 있는데, 17세기 초엽에 완성된 『東醫寶鑑』이 이러한 醫書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책은 『東醫寶鑑』에서 인용하지 않은 中國醫書를 다수 인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서적으로 『壽世保元』, 『赤水玄珠』, 『景岳全書』, 『醫宗金鑑』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景岳全書』는 현재 韓醫學 臨床에 가장 애용되는 『方藥合編』에서 30종의 新方이나 인용되는 등 많은 서적에 영향을 주었는데, 필자는 이에 착안하여 「新方八陣」에 수록된 처방을 중심으로 朝鮮後期 韓國醫學을 대표하는 여러 醫書들을 검색한 결과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 II. 本 論

### 1. 『景岳全書』 및 그 出版에 관하여

『景岳全書』에 대하여 『韓醫學大辭典·醫史文獻分冊』에서는 1624년에 완성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sup>2)</sup>, 『景岳全書』의 내용 자체에 따르면 대략 1636년에서 1640년 사이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 「雜證謀·諸氣·總論氣理」에 “崇貞 丙子년에 後學 張介

賓이 삼가 쓴다”<sup>3)</sup>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朝鮮에서 丙子胡亂이 일어났던 崇禎 9년(1636년)을 말하는 것으로 景岳은 당시 74세였다. 이 외에도 「傳忠錄·陽不足再辨」에는 “丙子年 여름에 마음을 나눌 벗을 얻었다”<sup>4)</sup>는 말이 있고, 「傳忠錄·辨丹溪」<sup>5)</sup>과 「雜證謀·齒牙·論證」<sup>6)</sup>에 자신의 나이가 70여세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들을 볼 때 적어도 丙子年인 1636년까지는 『景岳全書』가 저술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640년에 張景岳이 세상을 떠나게 되므로 『景岳全書』는 빠르면 1636년에서 늦어도 1640년 사이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張景岳은 『景岳全書』를 출판하지 못하고 1640년에 사망하였으며 1644년에는 明이 멸망하였다. 明清 王朝가 교체하던 혼란기에 개인의 힘으로는 『景岳全書』와 같이 방대한 책을 출판하기 힘들었으며, 따라서 『景岳全書』는 저술된 후 약 60년이 지난 1700년에 최초로 출판이 되었다<sup>7)</sup>. 景岳의 外孫인 林日蔚의 「全書記略」에는 “이 책은 만년에 편찬되어 재력이 모자라 上梓하지 못하고 내부친께 주어졌고 부친은 나에게 다시 주었다<sup>8)</sup>”라고 하였고, 買棠의 序에는 “책이 이미 완성되었으나 돈이 모자라 세상에 널리 전하지 못하고 죽었고, 遺稿는 모두 外손인 林日蔚君에게 남겨졌다<sup>9)</sup>”라고 하였으며, 또 『明儒學案』의 저자이자 明末清初의 三遺老 중 한 사람인 黃宗羲도 『南雷文案』 「張景岳傳」에서 “에석하게도 그 책은 만년에 저술되어 집안에만 숨겨져 있었다<sup>10)</sup>”라고 하였다. 그러나 石階가 1687년에 쓴 『質疑錄』의 序文에서는 “선생의 『全集』 중에 「雜證謀」, 「傷寒典」, 「婦人規」, 「傳忠錄」, 「本草類攷」<sup>11)</sup> 등의 서적이 더 있다면, 자손은 마땅히 여러 동지들과 함께 次第에 출판하여 기쁘게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sup>12)</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景岳全書』가 1700년 이전부터 일부 내용이 알려져 있었으며 또한 출판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景岳全書』는 清代에 여러 차례에 걸쳐 출판되었는데 크게 魯本과 買本 및 查本이란

세 가지의 판본으로 나뉘어진<sup>13)</sup>. 魯本이란 康熙 39년(1700년)에 景岳과 同鄉의 廣東布政使 魯超가 張景岳의 外孫 林日蔚과 함께 廣州에서 간행한 것이다<sup>14)</sup>. 그 다음이 買本인데 康熙 49년(1710년)에 兩廣轉運使 買榮이 廣州에서 간행하였다<sup>15)</sup>. 買序에서는 “널리 전파되지 못한 것을 애석하여 새로 번각하여 나라 안에 널리 공표한다<sup>16)</sup>”라고 하였다. 그후 康熙 52년(1713년)에 查禮南이 魯本을 기초로 교정하여 重刊한 것이 查本이다<sup>17)</sup>. 이상의 세 판본이 모두 廣東에서 출판되었는데, 廣東지방은 남북을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면서 상업이 활발한 지역이었으므로 『景岳全書』는 상당히 널리 유포되었다고 한다<sup>18)</sup>. 그러나 魯本과 買本은 널리 전파되지 못하다가 查本에 이르러 세상에 널리 전파되었다<sup>19)</sup>. 그후에도 계속 重刊되어 현재 확인된 것만으로도 약 40종의 異本이 있으나, 모두 이 세 가지 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20)</sup>.

## 2. 『景岳全書』의 輸入에 관하여

張景岳은 明末의 사람이지만 『景岳全書』는 淸初에 출판되었으며, 중국 내에서도 1713년이 되어서야 『景岳全書』가 광범하게 유포되었다. 시대적으로는 『東醫寶鑑』보다 약 30년 뒤이지만, 醫學思想의 측면으로는 滋陰派가 득세한 明初의 학술 뿐만 아니라 溫補學派의 시대인 明末까지의 학술을 총정리하였으며 철저히 ‘論證’과 ‘論治’를 강조하는 서술방식으로 辨證論治를 정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朝鮮後期 醫學이 『東醫寶鑑』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에도 『景岳全書』는 여러 醫書에서 인용되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서적들은 景宗때 周命新의 『醫門寶鑑』, 正祖때 丁若鏞의 『麻科會通』, 高宗때 黃度淵의 『醫宗損益』, 『方藥合編』과 李圭峻의 『醫鑑重磨』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景岳全書』가 언제부터 수입되었는지 정확하게 연대를 고증하기는 어렵다. 『王朝實錄』에는 朝鮮後期 中國에서 醫書를 수입한 기록이 여러 번 있었으나, 구체적인 書名이 밝혀진 것은 孫一奎의 『赤水玄珠』<sup>21)</sup>가 유

일하다<sup>22)</sup>. 『景岳全書』나 張景岳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따라서 『景岳全書』의 최초 수입년대는 중국에서 『景岳全書』가 출판된 연도와 朝鮮後期 醫書에서 『景岳全書』를 인용한 시기를 비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 상한선이 되는 『景岳全書』의 출판년도는 빠르면 魯本인 1700년 늦으면 查本인 1713년으로 볼 수 있는데, 『景岳全書』가 중국 내에 광범하게 유포된 查本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하한선은 1724년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朝鮮後期 醫書들 가운데 景岳의 新方을 최초로 인용하고 있는 周命新의 『醫門寶鑑』이 저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醫門寶鑑』은 周命新의 8권 手寫本을 高宗 때 內醫였던 李命錫이 새롭게 편집한 것으로<sup>23)</sup> 初稿와 出刊本에 차이가 있으므로 1724년의 初稿에는 『景岳全書』가 인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引用書目」에 『景岳全書』가 수록되어 있으며<sup>24)</sup>, 「凡例」에도 “六味回陽飲은 그 편을 옮겼다”<sup>25)</sup>고 하여 『醫門寶鑑』을 저술할 때부터 景岳의 新方이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景岳全書』가 최초로 수입된 연대는 대략 1713년에서 1724년 사이로 생각되며, 이 시기는 中國과의 文物交流가 다시 활발해진 肅宗 말엽에 해당한다.<sup>26)</sup>

이후에도 史料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中國醫書와 마찬가지로 『景岳全書』는 꾸준히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正祖 연간에는 淸과의 적극적인 문화교류가 있었는데, 1775년 正祖가 『四庫全書』<sup>27)</sup>를 매입하려다 실패하자 『古今圖書集成』을 사온 사실<sup>28)</sup>은 매우 유명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古今圖書集成』 가운데 子集 醫學部인 『醫部全錄』<sup>29)</sup>에는 『景岳全書』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들어있다<sup>30)</sup>. 또 正祖의 勅令에 의해 康命吉이 편찬한 『濟衆新篇』의 引用書目에 『景岳全書』가 포함되어 있으며 2회에 걸쳐 인용되고 있다. 正祖 때의 實學者 丁若鏞의 著書인 『麻科會通』에는 張景岳의 「麻疹證」뿐 아니라 『醫宗金鑑』<sup>31)</sup>, 『六科證治準繩』<sup>32)</sup> 등도 인용되어 있다<sup>33)</sup>. 이로써 볼 때 正祖代 朝鮮과 淸 사이의

의학교류가 매우 활발하였으며 景岳의 저작들도 이 시기에 대거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韓國醫學大系·卷30』에 『八陣方』이란 필사본 책이 있는데, 卷頭に 수록된 解題에는 “저자와 성립연대를 알수 없는 의서<sup>34)</sup>”라고 하였으나, 실제 그 내용은 景岳의 「新方八陣」과 「古方八陣」을 合本하여 총론격인 일부 내용을 삭제한 것<sup>35)</sup>이다. 또 三木榮의 『朝鮮醫書志』에도 이 책이 張景岳의 「新方八陣」, 「古方八陣」의 合本이라고 되어 있다<sup>36)</sup>. 이 책은 표제도 없는 필사본이므로 연대 고증에는 무리가 있지만, 『景岳全書』가 朝鮮後期 醫學에 수용된 모습을 나타내는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 朝鮮後期에 醫書의 出版이 활발하여 『醫學正傳』, 『醫學入門』 등의 서적이 重刊되었으나<sup>37)</sup>, 『景岳全書』는 우리나라에서 重刊된 기록이 없으므로 中國에서 수입된 책이나 혹은 『八陣方』과 같은 筆寫本의 형태로 醫家들 사이에 유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景岳全書』가 朝鮮後期 醫書에 미친 영향

#### 1) 『醫門寶鑑』에 미친 영향

『醫門寶鑑』은 景宗 4년(1724)에 岐下 周命新이 編著한 것을 高宗때 內醫 李命錫이 校訂하여 1918년 서울 滙東書館에서 鉛活字로 간행한 것으로<sup>38)</sup> 『東醫寶鑑』에 비해 114년 이후에 저술된 책이며 朝鮮後期の 醫書 가운데 『景岳全書』를 최초로 인용한 서적이다. 또한 이책의 특징은 各病門의 끝에 歷代醫家の 醫案 215개와 자신의 醫案 48개를 첨가한 것<sup>39)</sup>으로 『韓國醫學史』에서는 實證的 學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sup>40)</sup>. 이 책의 引用書目에는 『東醫寶鑑』에는 인용되지 않은 『壽世保元』이나 『景岳全書』 같은 책이 수록되어 있다.<sup>41)</sup>

『醫門寶鑑』에서 ‘(景岳)’이라는 인용표시가 된 처방은 모두 41개였다. 이 중 「新方八陣」에서 인용된 처방이 36개, 「古方八陣」에서 인용된 처방이 4개였다. 그리고 玉女英 1方은 (景岳)이라고 인용표시가 되어있지만, 『景岳

全書』에는 없는 처방이며 『東醫寶鑑』에서 잘못 인용된 처방으로 보인다<sup>42)</sup>.

周命新의 『醫門寶鑑』에서 景岳의 處方을 인용하는 형태는 本文과 함께 인용된 경우가 14개였고 ‘證餘方’에 수록된 경우가 27개로 ‘證餘方’의 형태로 인용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景岳全書』를 醫論보다는 處方을 중심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本文의 醫論이나 處方에 대한 설명도 『景岳全書』의 原文을 축약하여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다<sup>43)</sup>. 이러한 사실은 周命新이 『景岳全書』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주체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임상 실제에 가깝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 2) 『濟衆新篇』에 미친 영향

『濟衆新篇』은 正祖 23년(1799) 內醫院 首醫 康命吉이 왕명을 받아 編述한 官撰醫書로 嘉慶 22년(1817)에 中國의 京都經國堂에서 出版되기도 하였다<sup>44)</sup>. 이 책의 引用書目에는 『東醫寶鑑』을 포함하여 모두 21종의 醫書를 수록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景岳全書』도 포함되어 있다<sup>45)</sup>. 또한 이 책의 특징은 우리나라에서 藥性歌를 수록한 최초의 서적이라는 것인데,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에 비하여 83종을 추가한 것<sup>46)</sup>은 실용적이고 주체적인 면으로 평가된다.

『濟衆新篇』에는 『景岳全書』가 2회 인용되고 있지만 「新方八陣」의 처방은 인용되지 않았으며, 古方 1개와 本草 1개를 수록하고 있다. 「解毒」편에 인용된 ‘解鹽滷毒’<sup>47)</sup>과 「藥性歌」에 실린 烟草<sup>48)</sup>의 藥性歌<sup>49)</sup>는 모두 『景岳全書』의 내용을 적절히 편집하여 기록하고 있다.

#### 3) 『麻科會通』에 미친 영향

『麻科會通』은 正祖 22년(1798)에 丁若鏞이 編述한 것<sup>50)</sup>으로 自序에 의하면 李蒙叟의 『麻疹書』를 중심으로 당시 수입되었던 여러 中國醫書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술된 것이다.<sup>51)</sup> 이 책의 引用書目에 수록된 中國醫書로는 張介賓의 『麻疹詮』과 李時珍의 『本草綱目』, 吳

謙<sup>52)</sup>의 『醫宗金鑑』 등이 있는데<sup>53)</sup>, 이들은 모두 『東醫寶鑑』 이후에 출판된 것으로 당시 中國과 朝鮮 사이의 학술적인 교류가 활발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景岳全書』 「麻疹詮」의 序文은 卷頭에 『麻疹心法』, 『麻疹彙編』, 『聶久吾治疹大法』 등의 序文과 함께 수록할 정도로 중요시하고 있으며<sup>54)</sup>, 『醫宗金鑑』 「種痘心法要旨」는 卷末에 따로 수록되어 있다<sup>55)</sup>.

『麻科會通』에서는 처방을 ‘甲乙’과 같은 干支와 ‘角亢’과 같은 星宿를 기호로 분류하고 있는데, 『景岳全書』의 처방을 모두 52개 인용하고 있는데 그 중 22개는 「新方八陣」의 처방이었다. 또 나머지 30개는 「古方八陣」의 처방으로 이는 朝鮮後期 醫書 가운데 가장 많은 갯수이다. 그리고 麻疹과 痘疹에 대한 전문적인 醫書이므로 『景岳全書』 중에서 「麻疹詮」과 「痘疹詮」을 중심으로 인용하고 있으며, 處方도 그와 관련된 처방을 주로 인용하였다.

#### 4) 『醫宗損益』에 미친 영향

『醫宗損益』은 黃度淵(1807~1884)이 저술한 醫書로<sup>56)</sup>, 1867년에 완성한 원고를 다음해인 1868년(高宗5년)에 발간하였다.<sup>57)</sup> 이 책은 일반적으로 『東醫寶鑑』을 축소지향적으로 편집한 대표적인 의서로 알려져 있다.<sup>58)</sup> 그러나 引用書目에는 『濟衆新篇』, 『麻科會通』<sup>59)</sup>, 『及幼方』, 『山林經濟』, 『廣濟秘芟』, 『纓雲齋方』 등의 『東醫寶鑑』 이후 朝鮮 醫書와 『壽世保元』, 『類經』, 『景岳全書』, 『赤水玄珠』 등의 『東醫寶鑑』에 인용되지 않은 明代 醫書 및 『醫門法律』, 『濟陰綱目』, 『醫宗金鑑』, 『本草備要』, 『臨證指南醫案』 등의 清代 醫書도 인용하고 있어서 『東醫寶鑑』보다 21종이 더 많다.<sup>60)</sup> 또한 책의 篇次가 『東醫寶鑑』의 순서를 따르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 醫道와 醫德에 해당하는 내용을 卷頭의 總論에 많이 첨가하였다<sup>61)</sup>. 또 각 편마다 脈法, 症治, 治方の 순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 중 ‘症治’는 『東醫寶鑑』에는 없는 개념이며 張景岳의 「雜證謀」의 ‘論證’, ‘論治’를 본딴 것으로 張景岳의 醫論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sup>62)</sup>. 이상에서 볼 때 『醫宗損益』을 『東醫寶鑑』의 축소판으로 보는

기존의 견해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黃度淵은 序文에서 이 책을 『東醫寶鑑』을 기본으로 번잡한 것을 減하고 闕漏된 것을 보충한 것<sup>63)</sup>이라 하였으며, 凡例를 통하여 기존의 醫書에서 臨床에 가장 적절한 處方만을 모았을 뿐만아니라 局方이라하여 우리나라 內醫院에서 사용되던 처방과 俗方을 수록하였으며, 자신의 의견을 ‘◎’ 또는 ‘增’이라 표시하여 기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sup>64)</sup> 또한 附餘으로 「藥性歌」 1권을 수록하였는데, 이는 『壽世保元』의 361首와 『濟衆新篇』의 80首에 新增 73首를 추가한 것이다.<sup>65)</sup>

『醫宗損益』에서는 『景岳全書』의 處方을 모두 122개 인용하고 있는데, 그중 119개가 「新方八陣」에 수록된 張景岳의 처방이다. 그 가운데 4개의 처방<sup>66)</sup>이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113개의 처방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新方八陣」 189개 처방의 약 60%를 인용한 것으로 朝鮮後期 醫書 중에서 『景岳全書』의 新方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다. 또한 「古方八陣」에서 인용된 처방은 모두 5개였다. 그리고 『醫宗損益附餘』에서는 『景岳全書』 「本草正」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藥性歌의 형태가 『醫宗損益』은 8言이고 『方藥合編』은 7言인 것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동일하다.<sup>67)</sup>

#### 5) 『方藥合編』에 미친 영향

『方藥合編』은 黃度淵이 執筆한 것을 그 아들 黃必秀가 정리하여 1885년(高宗22)에 출판한 것으로<sup>68)</sup>, 이전에 저술하였던 『醫方活套』와 『損益本草』를 합하고 「用藥綱領」, 「救急禁忌」 등의 10여 편을 보충하여 편집한 것이다<sup>69)</sup>. 1887년에 『方藥合編』의 내용을 보충정리하여 『增訂方藥合編』을 출판하였고 그 이후에도 몇차례에 걸쳐 개정 및 증보판들이 출판되어 국내외로 널리 보급되었으며<sup>70)</sup> 현재까지 韓醫師들이 臨床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處方集이다. 또 이 책은 上中下 三統의 독특한 분류체계로 편집되었는데<sup>71)</sup>, 上統에는 補益劑 123개과 瘡傷 처방 12개, 解毒 처방 15개, 雜方 14개를 수록하였고, 中統에는 和解

하는 처방 181개, 下統에는 攻瀉하는 처방 163개와 石隱補遺方 18개를 수록하고 있다.<sup>72)</sup>

이 중에서 『景岳全書』에서 인용된 新方은 모두 30개로 『方藥合編』 전체 처방의 6.4%에 해당한다. 이 처방들은 모두 인용표시가 ‘益’으로 되어있어서 『醫宗損益』을 통해 재인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sup>73)</sup> 또 景岳의 新方은 上統에 19개, 中統에 9개, 下統에 2개의 빈도로 실려 있으며, 上統에는 주로 補陣이나 熱陣, 固陣의 처방이 수록되고 中統에는 주로 散陣, 和陣의 처방이 수록되고 下統에는 和陣의 처방이 수록되어 있다. 補益하는 處方인 上統에 景岳의 처방이 많이 인용되는 것은 張景岳의 溫補思想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처방의 윗단에 수록된 藥性歌 514종은 『萬病回春』, 『濟衆新篇』, 『醫宗損益』과는 달리 14자로 구성되어 있으나<sup>74)</sup> 기본적인 내용은 『醫宗損益』과 동일하다. 이 가운데 인용된 「本草正」 등의 내용으로는 黃精, 三七根, 黃連, 柴胡, 玄胡索, 薑黃, 莪朮, 麻黃, 熟地黃, 大黃, 附子, 烟草<sup>75)</sup>, 兎絲子, 沙蔘, 木鱉, 肉桂, 丁香, 金櫻子, 紫何車, 食鹽의 22종이 있다.

#### 6) 『醫鑑重磨』에 미친 영향

『醫鑑重磨』는 李圭峻(1855~1923)이 1908년에 저술한 醫書<sup>76)</sup>로 『東醫寶鑑』을 거듭 연마한다'는 의미에서 『醫鑑重磨』라고 이름을 붙였으며, 그가 평소에 주장하던 扶陽論과 氣血論에 부합하는 것을 『東醫寶鑑』 중에서 발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77)</sup> 그러나 실제 石谷의 扶陽論은 景岳의 溫補學說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데<sup>78)</sup>, 「扶陽論」에서 “今夫人之死也에 形體未壞面氣息이 先絶하니 此果陽有餘而陰不足者乎요, 余故로 反之曰人之一身에 陽常患不足이라 扶陽爲主하니”<sup>79)</sup>라고 한 것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方劑八法歌」가 “補陣, 和陣, 熱陣, 寒陣, 散陣, 收陣, 攻陣, 因陣”으로 景岳의 八陣의 분류방식을 모방한 것이며<sup>80)</sup>, 『醫鑑重磨』의 처방집이라고 할 수 있는 「局方類選」에서 景岳 新方을 인용하고 있다.

『醫鑑重磨』에서 인용표시가 (景岳)으로 되

어있는 처방은 15개인데, 그 중 「新方八陣」의 처방은 10개였으며 「古方八陣」의 처방은 없었다. 또 잘못 인용된 처방이 5개였는데<sup>81)</sup>, 이는 모두 『方藥合編』에 수록된 처방이었다. 또한 「新方八陣」에서 인용한 처방도 『方藥合編』과 중복되며, 특히 溫臟丸은 『方藥合編』에서 『東醫寶鑑』의 처방으로 잘못 인용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局方類選」은 『方藥合編』의 내용 중에서 扶陽論에 적합한 처방들을 모은 것이라고 생각된다.<sup>82)</sup>

#### 7) 『東醫壽世保元』에 미친 영향

『東醫壽世保元』은 四象醫學의 原典으로 1894년(高宗30) 李濟馬(1837~1900)가 저술하였는데 1900년에 다시 「性命論」에서 「太陰人論」까지 增冊하고 太陽人 이하 三論은 미처 끝내지 못하고 그해 咸興에서 죽었다. 다음해(1901년) 咸興郡 栗東契에서 그의 門人들이 간행하였다.<sup>83)</sup> 『格致彙』와 더불어 李濟馬의 독특한 醫學思想을 보여주는 이 책은 인용문이 모두 『東醫寶鑑』에서 나왔으며 『東醫寶鑑』의 오류조차 수정없이 받아들이 정도로 『東醫寶鑑』을 原典으로 저술된 것이라고 하며<sup>84)</sup>, 「醫源論」에서도 李濟馬는 『東醫寶鑑』이 인용하지 않은 醫書나 醫家は 언급하지 않고 있다.<sup>85)</sup>

그런데 『東醫壽世保元』 「新定少陰人病應用要藥二十四方」의 白何烏理中湯의 後注文에 “古方の 何人飲에서 白何首烏 5錢<sup>86)</sup>을 써서 瘡疾을 치료하였다”<sup>87)</sup>고 하였는데 何人飲은 「新方八陣」 因陣25의 처방으로 氣血俱虛로 久瘡이 그치지 않는 證에 사용한다.<sup>88)</sup> 何人飲이란 처방명이 있는 것만으로 李濟馬가 『景岳全書』를 인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의 低本으로 『東醫寶鑑』만을 사용하였다더라도 평소의 醫學經驗에 있어서는 『東醫寶鑑』 이외의 서적도 참고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1. 朝鮮後期 醫書에 인용된 景岳新方

처방명	인용서적	醫門寶鑑	麻科會通	醫宗損益	方藥合編	醫鑑重磨
降癰散	新因36			*		
學元煎	新補17	*		*	*	*
決津煎	新因2			*		
固陰煎	新固2			*		
固真丸	新固6	*				
牽提丸	新固9	*		*		
廓清飲	新和13	*		*		
九味異功煎	新因22	*	*	*		
九蜜煎	新因12			*		
歸葛飲	新散13			*		
歸柴飲	新散17			*		
金水六君煎	新和1	*		*	*	*
煨肝煎	新熱15	*		*	*	*
綠豆飲	新寒14			*		
當歸地黃飲	新補20			*		
當歸茯苓煎	新因34			*		
大補元煎	新補1	*		*		
大分清飲	新和9	*		*	*	
大營煎	新補14			*	*	
大溫中飲	新散8			*		
大和中飲	新和7	*		*	*	
麻桂飲	新散7			*	*	
木賊煎	新因26			*		
排氣飲	新和6			*		
百順丸	新攻6		*			
補陰益氣煎	新補16			*	*	
保險煎	新寒1			*		
復陽丹	新熱20			*		
秘元煎	新固1			*	*	
冰白散	新因47			*		
四味回陽飲	新熱1			*		
四柴胡飲	新散4			*		
徒薪飲	新寒4			*		
四維散	新熱12			*		
四陰煎	新補12	*		*		
參茸飲	新熱2		*	*		
三氣飲	新熱17	*		*	*	
三柴胡飲	新散3			*		
三陰煎	新補11			*		
惜紅煎	新固4	*		**		
雪梨漿	新寒16			*		
小分清飲	新和10			*		
疎邪飲	新因16		*			
小營煎	新補15			*		
逍遙飲	新因1			*		
掃蟲煎	新和14		*			
小和中飲	新和8	*		*		
搜毒煎	新因19		*	*		
壽脾煎	新熱16	*		*	*	*
柴葛煎	新散14		*	*		
柴歸飲	新因15		*	*	*	*

柴陳煎	新補9			*		
神香散	新和20	*		*	*	
牙皂散	新因27			**		
約營煎	新寒20			*		
約陰丸	新寒18			*		
兩儀膏	新補18			*	*	
養中煎	新熱4	*		**		
涼胎飲	新因8			*		
涼血養營煎	新因17		*	*		
荔香散	新因28	*		*		
連翹歸尾煎	新因32			*		
連翹金貝煎	新因31			*		
蠟蟲丸	新攻5		*			
苓朮二陳煎	新和4			*		
苓朮羌絲丸	新固5			*		
五君子煎	新熱6		* <sup>1)</sup>	*		
五德丸	新熱18			*	*	*
五物煎	新因3			*		
五福飲	新補6			*		
五柴胡飲	新散5			*		
五陰煎	新補13	*		*		
玉關丸	新固8	*				
玉女煎	新寒12			*		
玉泉散	新寒15			*		
溫胃飲	新熱5	*	*	*		
溫臑丸 <sup>2)</sup>	新熱24		*	*	*	*
右歸飲	新補3	*		*	*	
右歸丸	新補5	*		*		
牛膝煎	新因24			*	*	
胃關煎	新熱9	*	*	*	*	
六氣煎	新因21		*	*		
礞鱗珠	新因14	*		*	*	
六物煎	新因20		*	*		
六味回陽飲	新熱2	*	*	*	*	
六安煎	新和2			*	*	*
二柴胡飲	新散2			*		
二辛煎	新因45			*		
二陰煎	新補10	*		*		
理陰煎	新熱3	*	*	*	*	*
二朮煎	新和12			*		
一柴胡飲	新散1			*		
一陰煎	新補8			*		
滋陰八味丸	新寒17			*		
正柴胡飲	新散6			*	*	
貞元飲	新補19		*	*	*	
濟川煎	新補21	*		*	*	*
調經飲	新因4			*		
佐關煎	新熱10			*		
左歸飲	新補2	*		*		
左歸丸	新補4	*		*		
鎮陰煎	新熱13	*		*	*	*
贊育丹	新因又14	*		*		
贊化血餘丹	新補24			*		
蒼朮丸	新和17			*		
清化飲	新因13			*		
抽薪飲	新寒3		*	*		

追緒飲	新因又25			*	*	
太清飲	新寒13	*				
太平丸	新攻3			*		
兔絲煎	新因3			*		
通癆煎	新因5			*		
透邪煎	新因23		*	*		
貝母丸	新和18	*				
何人飲 <sup>1)</sup>	新因25	*		*	*	*
化肝煎	新寒10			*		
和胃飲	新和5	*				
和胃二陳煎	新和3			**	*	
化陰煎	新寒7			*		
滑胎煎	新因9			*		
休癩飲	新補29			*	*	
總計		36	22	113	30 (33)	10

- 1) 『麻科會通』에서는 五君子湯(小151)로 인용되어 있음.
- 2) 溫臟丸은 『方藥合編』, 『醫鑑重磨』에서는 『東醫實鑑』의 처방이라고 잘못 인용되어 있음.
- 3) 何人飲은 『東醫壽世保元』에서도 處方名이 언급됨.

표2. 朝鮮後期 醫書에 인용된 景岳古方

처방명	인용서적	醫門寶鑑	濟衆新篇	麻科會通	醫宗損益
羌菊散	痘疹155			*	
景岳解毒湯 <sup>1)</sup>	痘疹51			*	
苦楝湯	攻47			*	
蘆薈肥兒丸	小114			*	
大蘆薈丸	小115			*	
萬應丸	攻99			*	
木香檳榔丸	攻49			*	
妙應丸	攻100			*	
蕪荑散	和319			*	
蜜蒙花散	因30			*	
四君子湯	補1			*	
四味肥兒丸	小111	*			
四味消毒飲 <sup>2)</sup>	痘疹48			*	
四神丸	婦158	*			
桑枝灸法	外120				*
桑枝煎	外109				*
小柴胡湯	散19			*	
升麻透斑湯	痘疹140			*	
神仙截法	外100				*
羚羊角散	婦31			*	
五積散	散39			*	
玉鑰匙 <sup>3)</sup>	因193			*	
遇仙丹	攻51			*	
遇仙無比丸	外175	*			
牛黃瀉心湯	攻35			*	
雄黃兌散	因257			*	
遠志酒	外106				*
六君子湯	補5			*	
六味消毒飲	痘疹49			*	
二母散	寒50			*	
紫草飲子	痘疹67	*			
前胡枳殼湯	痘疹94			*	
秦皮散	痘疹111			*	
清肺消毒飲 <sup>4)</sup>	痘疹146			*	
清肺消毒化痰湯	痘疹148			*	
清肺飲	痘疹145			*	
追蟲丸	攻97			*	
托裏散	痘疹4			*	
解鹽瀉毒	古因234		*		*
總計		4	1	30	5

- 1) 『古方八陣』에는 解毒湯으로 되어 있음
- 2) 『古方八陣』에는 四味消毒散으로 되어 있음
- 3) 『古方八陣』에는 玉鑰匙로 되어 있음
- 4) 『古方八陣』에는 清肺消毒湯으로 되어 있음



### III. 考 察

이상과 같이 『景岳全書』는 朝鮮後期 여러 醫書에 인용되고 있으며, 특히 19세기의 대표적인 三大醫書인 『東醫壽世保元』, 『醫鑑重磨』, 『醫宗損益』이 모두 張景岳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종래에는 『濟衆新篇』과 『醫宗損益』을 『東醫寶鑑』의 拔萃書로 보는 등<sup>89)</sup> 일반적으로 朝鮮後期 醫學은 『東醫寶鑑』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臨床的 實用性을 추구한 縮小指向的 再編輯의 時代로 이해되고 있었다<sup>90)</sup>. 이러한 학설의 근거는 朝鮮後期에 나온 대부분의 醫書의 目次가 『東醫寶鑑』과 거의 동일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東醫寶鑑』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壽民妙詮』, 『醫鑑刪定要訣』, 『醫宗損益』 등은 『東醫寶鑑』과 目次가 거의 같으나 『廣濟秘笈』, 『濟衆新篇』, 『醫鑑重磨』은 순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sup>91)</sup>, 『醫門寶鑑』과 『東醫壽世保元』과 같이 篇次가 전혀 다른 醫書<sup>92)</sup>도 존재한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 『東醫寶鑑』이 朝鮮後期 醫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景岳全書』나 『赤水玄珠』, 『醫宗金鑑』 등과 같이 『東醫寶鑑』以後에 나온 中國醫書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朝鮮後期 醫學을 『東醫寶鑑』의 縮小指向的인 再編輯으로 보는 견해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景岳全書』를 인용하고 있는 醫書들은 『東醫寶鑑』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보충하려 한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면 『醫門寶鑑』의 序文에서 周命新은 『東醫寶鑑』이 규모는 방대하지만 중복과 결손이 많은 것이 흠<sup>93)</sup>이라고 하였으며, 책의 篇次도 『東醫寶鑑』과 달리 전통적인 雜病의 분류를 따라 中風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正祖는 『壽民妙詮』의 序文과 『濟衆新篇』의 跋文을 통하여 『東醫寶鑑』의 醫論과 醫方이 서로 錯雜하여 體例가 整齊되지 못하였으며<sup>94)</sup>, 글이 번잡하고 말이 중첩되거나 증상을 빠뜨린 것이 있으며 지금 쓰이고 있는 처방들도 기록

되지 못한 것이 많다<sup>95)</sup>고 하여 『東醫寶鑑』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丁若鏞은 『麻科會通』을 저술함에 있어서 『東醫寶鑑』보다는 李蒙叟의 『麻疹書』와 여러 中國醫書を 중심으로 저술하였는데<sup>96)</sup>, 이는 『東醫寶鑑』이 ‘麻疹’에는 실용적 醫書로 여겨지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19세기에 와서 李圭峻의 『醫鑑重磨』는 『東醫寶鑑』을 거듭 연마한다는 의미에서 저술된 책이며 또한 20세기 초반에 덧붙여진 譯者序에서도 『東醫寶鑑』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黃度淵의 『醫宗損益』은 『東醫寶鑑』의 篇次를 따르고 있지만<sup>97)</sup> 번잡한 것을 없애고[損]하고 闕漏된 부분을 보충[益]<sup>98)</sup>하는 의미에서 이 책을 저술하였다고 하였으며, 跋文에서도 “내 능력이 景岳의 숨겨진 뜻과 거의 같기를 바라나, 옛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여<sup>99)</sup>”라고 하여 張景岳의 學說이 그의 醫學 經驗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18세기 초반부터 『東醫寶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東醫寶鑑』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濟衆新篇』을 편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政府보다 民間에서 著述이 활발하였던 19세기의 대표적인 醫書인 『醫宗損益』, 『醫鑑重磨』, 『東醫壽世保元』는 모두 『景岳全書』를 비롯한 『東醫寶鑑』 이후의 中國醫書에 영향을 받았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東醫寶鑑』에 대하여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sup>100)</sup>.

그러나 朝鮮後期 醫書들 가운데는 『景岳全書』를 인용하지 않은 醫書도 많이 있다. 『醫門寶鑑』 이후의 醫書이면서 『景岳全書』를 인용하지 않은 서적으로는 趙廷俊의 『及幼方』<sup>101)</sup>, 李景華의 『廣濟秘笈』<sup>102)</sup>, 李以斗의 『醫鑑刪定要訣』<sup>103)</sup>, 李永春의 『春鑑錄』<sup>104)</sup> 등이 있다. 비슷한 시기에 저술되었으면서도 이 책들이 『景岳全書』를 비롯한 中國醫書가 인용되지 않은 이유는 몇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景岳全書』가 朝鮮後期에 한번도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적이 없으며 주로 中國에서 수입하거나 「八陣方」과 같은 필사본으로 보급되었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과 계층에 속해있던

醫家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혹은 그 시대의 정치적인 분위기가 일부 北學派를 제외하고는 ‘反淸崇明’의 사상이 팽배하였으므로<sup>105)</sup> 淸代에 수입된 中國醫書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景岳全書』를 배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朝鮮後期 醫書들은 『景岳全書』를 인용하고 있는 醫書들의 상호관계를 살펴봄으로써 朝鮮後期 醫書의 系統을 간략하게나마 설정해 볼수 있었다. 먼저 『景岳全書』를 최초로 인용한 韓國醫書는 『醫門寶鑑』인데 저술 연대가 1724년이지만 1918년에 와서야 출판되었으므로 이후에 나타나는 醫書들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18세기 말에 저술된 『麻科會通』(1798년)과 『濟衆新篇』(1799년)은 모두 『景岳全書』를 인용하고 있는데, 『麻科會通』은 景岳의 醫論과 新方을 비교적 많이 인용하고 있지만 ‘麻疹’이라는 특수한 질병에 국한된 면이 있고, 『濟衆新篇』에는 單方 1개와 本草 1개만 있을 뿐 處方이나 醫論은 인용된 바가 없다. 또한 醫書는 아니지만 일종의 百科事典인 徐有渠의 『林園經濟志』 중의 『仁濟志』에는 『東醫寶鑑』, 『廣濟秘笈』, 『濟衆新篇』과 같은 우리나라 의서와 함께<sup>106)</sup> 『景岳全書』가 인용되어 있는데<sup>107)</sup>, 출판되지 못하고 筆寫本으로만 되어 있어서 정확한 연대는 알수가 없지만 19세기에 이르러 『景岳全書』가 널리 알려졌다는 것을 알수 있는 자료로 생각된다. 19세기 말에 저술된 黃度淵의 『醫宗損益』에는 『景岳全書』의 醫論, 治方, 本草 등을 다량 인용하였으며 18세기의 『濟衆新篇』과 『麻科會通』의 성과도 섭렵하고 있다. 특히 各門에 ‘論治’라는 章을 통해 『景岳全書』의 ‘論證’과 ‘論治’를 인용한 것은 韓國醫學에 부족한 점인 辨證論治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수 있다. 또한 黃度淵은 綜合醫書의 성격을 가진 『醫宗損益』에 만족하지 않고 臨床便覽인 『方藥合編』을 저술하였는데 여기에도 『景岳全書』의 處方과 本草가 인용되고 있다. 黃度淵은 景岳의 醫論과 處方을 충분히 정리하고 소화하여 『醫宗損

益』에 수록하였으며, 그 내용을 다시 『方藥合編』을 통하여 간편하게 요약하고 자신의 경험에 따른 活套를 덧붙이고 있다. 이 외에도 『東醫壽世保元』과 『醫鑑重磨』가 『景岳全書』를 인용하고 있는데, 『東醫壽世保元』은 何人飲에서 何首烏를 쓴 일례를 인용하고 있으며 『醫鑑重磨』에서는 『方藥合編』에서 처방을 재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李圭峻은 『醫鑑重磨』, 『扶陽論』 등에서 그 이전까지 강조되지 않았던 張景岳의 溫補思想을 인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淸上通中溫下”라는 자신의 독특한 醫學理論을 수립하였다. 이상과 같이 『景岳全書』의 輸入은 18세기 초반의 周命新에 의하여 시작되어 19세기 말의 黃度淵에 의하여 총정리되며 李圭峻의 扶陽論에 이르러 자기류의 독특한 이론으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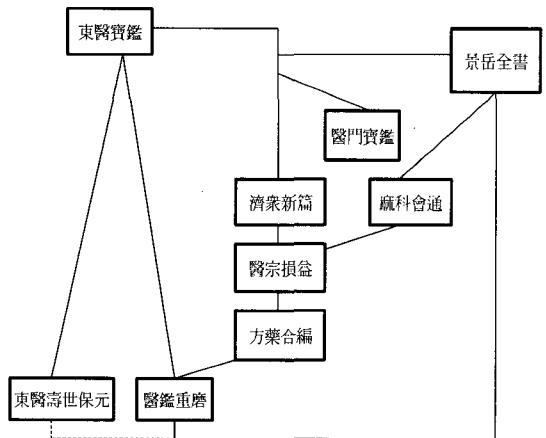


그림 1. 『景岳全書』를 인용한 醫書의 系統  
실선은 직접적인 영향, 점선은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냄.

#### IV. 結 論

이상과 같이 여러 醫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景岳全書』가 朝鮮後期 韓國醫學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景岳全書』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輸入된

연대는 대략 1713년에서 1724년 사이로 추정된다.

2. 『景岳全書』가 朝鮮後期 醫學에 미친 영향은 『醫門寶鑑』, 『濟衆新篇』, 『麻科會通』, 『醫宗損益』, 『方藥合編』, 『醫鑑重磨』, 『東醫壽世保元』 등의 醫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18세기에는 일부 處方이나 ‘麻疹’ 등의 특수 질환을 중심으로 인용되고 있으며 그 수량도 비교적 적다.

4. 19세기에 이르러서는 引用되는 處方의 數的인 증가와 더불어 醫論이 전면적으로 인용되고 있으며, 『方藥合編』과 『醫鑑重磨』 등에서 景岳의 理論과 처방에 대해 독창적인 견해가 보이고 있다.

그리고 『景岳全書』 외에도 『東醫寶鑑』 이후에 출간되었으면서 朝鮮後期 醫書에 영향을 끼친 中國醫書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연구함으로써 朝鮮後期 醫學의 발전과정 및 계통설정과 韓國과 中國 사이의 醫學交流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註釋

1.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分冊, 249
2. 『類經』이 1624년에 저술된 것과 혼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時崇禎丙子, 後學介賓謹識 (張介賓 : 景岳全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795, 1999.)
4. 茲於丙子之夏, 始得神交一友 (張介賓 : 景岳全書, 49)
5. 茲余年逾古稀, 經歷不少 (張介賓 : 景岳全書, 69)
6. 故余年逾古稀, 而齒無一損 (張介賓 : 景岳全書, 628)
7. 이와같이 『景岳全書』는 明末에 완성되었지만 清代에 출판된 책이므로 朝鮮後期 醫書들이 『景岳全書』를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朝鮮과 淸 사이의 의학교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 是編成於晚年, 力不能梓, 授先君, 先君復授日蔚. (張介賓 : 景岳全書·全書記略, 15)
9. 書既成, 限於貨, 未及流傳而歿, 遺草屬諸外

- 孫林君日蔚. (張介賓 : 景岳全書·買序, 8)
10. 惜其書晚出, 尙藏於家 (張介賓 : 景岳全書·張景岳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1829에서 재인용)
11. 『景岳全書』를 全集이라고 부르고 있고 「本草正」 대신 「本草類攷」가 있으며, 各편의 순서가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景岳全書』가 처음부터 현재와 같은 제목과 편제를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2. 若先生全集中更有『雜證謀』·『傷寒典』·『婦人規』·『傳忠錄』·『本草類攷』等書, 嗣當謀諸同志君子, 次第梓行以其欣賞焉告. (張介賓 : 質疑錄(中國醫學大成三編12卷), 318)
13. 이 세가지 版本을 구별은 『景岳全書』의 맨 앞부분의 「全書記略」과 「查序」, 「買序」, 「魯序」와 范時崇의 「范序」가 붙은 형태에 따라서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각주를 참고하기 바란다.
14. 魯本 계통에는 魯序와 「全書記略」이 있고 각권마다 “會稽魯超謙庵訂”이 기록되어 있으며, 學海屢藏版이 대표적이다. 杏林書院에서 영인한 『景岳全書』 판본은 「全書記略」과 「魯序」만 있으므로 이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5. 買本 계통으로 대표적인 것은 ‘本衙藏版’인데 「范序」, 「買序」, 「全書記略」만 있고 「魯序」가 없으며, 각권마다 “瀛海買棠青南訂”란 말이 붙어있다. 세 판본 가운데 本衙藏版이 가장 오자가 적고 교정이 정확하므로 人民衛生出版社에서 交點한 『景岳全書』에서는 이 계통에 속하는 光德堂版을 저본으로 삼았다.
16. 惜其流傳不廣, 出俸翻刻, 公諸宇內. (張介賓 : 景岳全書, 9)
17. 查本 계통은 「查序」, 「范序」, 「買序」와 「全書記略」만 있고 역시 「魯序」는 없으며, 대신 「重訂景岳全書姓氏」가 붙어 있으며 각권마다 그 권을 重訂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 查本의 대표적인 것은 岳峙屢藏版인데, 查本은 買本을 기초로 重校하였지만 새로운 오자까지 많이 발생한 판본이라고 한다. 一中社에서 영인한 판본은 岳峙屢藏版이라고 표제가 되어있으므로 이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8. 張介賓 : 景岳全書·校後記, 1814~5

19. 張介賓 : 景岳全書·『景岳全書』校點說明, 4
20. 張介賓 : 景岳全書·校後記, 1814~5
21. 明代 孫一奎의 撰으로 1584년에 刊行되었으며, 『赤水玄珠』, 『醫旨緒餘』 및 『孫氏醫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의학대사전·의사문헌분책, 260) 이 책은 『東醫寶鑑』에는 인용되어 있지 않으나, 『濟衆新篇』, 『醫宗損益』 등 朝鮮後期の 의서들에 인용되고 있다.
22. 왕조실록 CD롬 제3집, 서울, 서울시스템, (동국대학교 경주도서관 소장)을 검색하였음. 이는 景宗 2년(1723) 譯官인 黃夏成이 본국으로 돌아 올때 內醫院에 바친 것으로서 이것을 치하하기위해 상을 내렸다고 한다. (김두중 : 韓國醫學史, 236)
23. 김두중 : 韓國醫學史, 389
24. 현재 한의계에 가장 널리 통용되는 판본은 1987년 大邱市 東洋綜合通信教育院이란 곳에서 영인한 것으로 이 책에는 「凡例」와 「引用書目」이 누락되어 版本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나 김신근의 『韓醫藥書攷』의 『醫門寶鑑』 조문에 「凡例」와 「引用書目」이 수록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었다. (김신근, 韓醫藥書攷, 386)
25. 김신근 : 韓醫藥書攷, 386
26. 胡亂 이후 中國과의 관계는 매우 경색되어 있었는데, 肅宗 末葉에 이르러 文物의 교류가 다시 활발해졌다. 『赤水玄珠』나 『景岳全書』의 輸入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7. 乾隆 38년(1773)에 朱筠의 주청으로 四庫全書館을 열어 편찬을 시작하여 乾隆 42년(1782)에 완성되었다. (홍원식 : 中國醫學史, 295)
28. 이태진 : 왕조의 유산, 서울, 지식산업사, 131, 1994.
29. 이는 『古今圖書集成』의 일부로서 清代 蔣延錫 등이 편찬하여 1723년에 간행하였다. (한의학대사전·의사문헌분책, 10) 清代에 나온 서적은 『景岳全書』와 陳士鏞의 『石室秘錄』과 함께 이 책에 인용되어 있다.
30. 陳夢雷 主編 : 醫部全錄, 서울, 대성문화사, 1992.
31. 청대 乾隆년간에 정부에서 조직 편성한 대형 의학총서로 吳謙 등이 주편하였고 1742년에 간행되었다. (한의학대사전·의사문헌분책, 223)
32. 明代 王肯堂의 저작으로 1602년에 간행되었다. 雜病, 類方, 傷寒, 瘍醫, 幼科, 女科의 六科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한의학대사전·의사문헌분책, 294)
33. 丁若鏞 : 麻科會通(與猶堂全書 20冊), 서울, 여강출판사, 9
34. 김신근 主編 : 韓國醫學大系·卷30·解題, 서울, 여강출판사, 2, 1992.
35. 「新方八略引」과 「補略」, 「和略」 등의 「八略」 및 「古方總目」에 붙은 「附古方條序」가 없으며, 處方의 내용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36. 三木榮 : 朝鮮醫書志, 124
37. 김신근 : 韓醫藥書攷, 768
38. 김신근 : 韓醫藥書攷, 379
39. 우리나라에서 醫案을 최초로 수록한 醫書는 『醫方類聚』이며, 우리나라 醫師의 醫案이 수록된 것은 燕山君 3년 李宗準의 『太乙神仙紫金丹方』이 최초이다. (盧衆禮 외 : 醫方類聚, 서울, 여강출판사, 1992. 李宗準 著, 李秉禧 解題 : 太乙神仙紫金丹方(季刊書誌學報通卷6), 서울, 韓國書誌學會, 1992, v6-155~203)
40. 김두중 : 韓國醫學史, 337
41. 김신근 : 상계서, 387
42. 이는 玉女煎과 비슷한 이름 때문에 생긴 착오로 생각된다. 玉女英은 『東醫寶鑑』 「外形·皮·瘡瘻癩」에 인용되어 있는데 출전이 본문에서는 『奇效』 처방에서는 『入門』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醫學入門』에는 玉女英이란 처방이 없으며, 『奇效良方』 「瘡瘍門」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東醫寶鑑』의 기록이 부정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醫宗損益』 「癩疹」에서도 『東醫寶鑑』의 처방으로 인용되어 있다. (周命新 : 상계서, 320 ; 許浚 : 東醫寶鑑, 286 ; 方賢 : 奇效良方(四), 1016 ; 黃度淵 : 醫宗損益(上), 278)
43. 예를 들어 『醫門寶鑑』 「衄血」에 “○一曰, 陰虧於下, 陽浮於上, 而爲衄者, 宜八味丸(臟腑)鎮陰煎. 鎮陰煎(景岳) 治陰虛於下, 格陽於上, 則眞陽失守, 血隨而溢, 而致吐衄, 六脈細脫, 手足厥冷. 熟地黃 一兩, 附子製, 牛膝, 肉桂各二錢, 澤瀉 一錢半, 甘草灸 一錢.”라고 되어 있는데, 醫論은 『景岳全書』 「雜證謀·血

證·衄血新按」의 “一. 衄血有格陽證者, 以陰虧於下, 而陽浮於上, 但察其六脈細微, 全無熱證, 或脈見浮虛豁大, 上熱下寒而血衄不止, 皆其證也, 治宜益火之源, 古有八味地黃湯, 乃其對證之劑, 余復有鎮陰煎之製, 其效尤捷.”을 인용한 것이며, 處方은 「新方八陣·熱陣13」의 “治陰虛於下, 格陽於上, 則眞陽失守, 血隨而溢, 以致大吐大衄, 六脈細脫, 手足厥冷, 危在頃刻而血不能止者, 速宜用此, 使孤陽有歸, 則血自安也. 如治格陽喉痺上熱者, 當以此湯冷服. 熟地 一·二兩 牛膝 二錢 炙甘草 一錢 澤瀉 一錢半 肉桂 一·二錢 製附子 五·七分或一·二·三錢. ……”을 인용한 것이다. (周命新 : 상계서, 82; 張介賓 : 景岳全書, 663; 1172~3)

44. 김신근 : 상계서, 456  
 45. 康命吉 : 濟衆新篇·凡例,(동의학총서9), 서울, 여강출판사, 40, 1992.  
 46. 康命吉 : 濟衆新篇, 39  
 47. 『濟衆新篇』에는 “鹽滷毒[景岳]凡婦女服鹽滷垂危者急取活鴨或雞斬頭將塞口中以熱血灌之可解若飲滷多必數隻方盡收其毒.”라고 되어 영磐齋○ 靑齋全書』「古方八陣·因陣234」에는 “凡婦女有服鹽滷垂危者 急取活鴨或雞斬去頭 將頸塞口中 以熱血灌之可解 若滷多者必數 隻方足盡收其鹹毒”라고 되어 있다. (康命吉 : 상계서, 418; 張介賓 : 景岳全書, 1619)  
 48. 張景岳은 「本草正」에서 담배의 수입연대를 萬曆年間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최근의 연구에서도 담배가 중국으로 수입된 것은 明 萬曆(1573~1620) 후반 즉 17세기 초반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616년에 日本을 통해 수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東醫寶鑑』에는 烟草가 수록되어 있지 않고 中國醫書 중에서도 『景岳全書』의 기록이 최초로 알려져 있다. (張介賓 : 景岳全書 1189~90; 袁庭棟 : 中國吸烟史話, 北京, 商務印書館, 1995, 34, 47, 124)  
 49. 『濟衆新篇』에는 “烟草辛熱逐瘴治痰, 寒毒風濕殺蟲尤堪. 담비 純陽, 善陰滯神效. 若陽盛氣越而多燥多火, 及氣虛多汗者, 不宜. 或多吸醉倒, 冷水一口解之即醒; 若見煩悶者, 用白糖解之.”라고 되었으며, 『景岳全書』에는 “味辛氣溫, 性微熱, 升也, 陽也. 燒烟吸之, 大能醉

人, 用時惟吸一口或二口, 若多吸之, 令人醉倒, 久而後甦, 甚者以冷水一口解之即醒; ……善逐一切陰邪寒毒, 山嵐瘴氣, 風濕邪閉腠理, 筋骨疼痛, 誠頃刻取效之神劑也, 用以治裏, 善壯胃氣, 進飲食, 祛陰濁寒滯, 消臑脹宿食, 止嘔噦霍亂, 除積聚諸蟲, 解鬱結, 止疼痛, 行氣停血瘀, 舉下陷後墜, 通達三焦, 立刻見效. ……”라고 되어 있다. 담배는 南草, 南蠻草, 淡芭菰 등으로 불리었으나 이미 正祖 때에는 공식적으로 ‘담비’라는 명칭이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 (康命吉 : 濟衆新篇(原文), 158; 張介賓 : 상계서, 1189~90)  
 50. 『韓國醫學史』의 原文에는 正宗22年 戊戌(明嘉慶3年, 1798年)으로 되어 있으나 正祖와 淸으로 고쳐야 한다. (김두중 : 韓國醫學史, 342)  
 51. 丁若鏞 : 麻科會通(與猶堂全書 第20冊 第7集醫學集), 3~4  
 52. 『麻科會通』의 原文에는 錢謙이라 되어 있으나 吳謙의 誤字가 분명하며, 또 徐東臯를 俞東臯, 王肯堂을 王旨堂이라고 하는 등의 오류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丁若鏞의 실수라기 보다는 『與猶堂全書』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생긴 誤植으로 생각된다. (丁若鏞 : 麻科會通, 8~11)  
 53. 其有一性多人者, 取其大家, 標云某氏. 如萬全·張介賓·朱之黯·李梴·龔廷賢·吳學擴·王旨堂·黃廉·錢謙等, 得稱某氏. 與皆書名, 書號以別之. (丁若鏞 : 麻科會通, 8~11)  
 54. 丁若鏞 : 상계서, 5~7  
 55. 丁若鏞 : 상계서, 416~43  
 56. 김두중 : 상계서, 456  
 57. 序文의 年代는 丁卯(1867)이고 刊記는 高宗5年 戊辰(1868)이다. (崔秀漢 : 朝鮮醫籍通考,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48~9, 1996.)  
 58. 許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8년 新增版5刷, 3 (權基周 識, 東醫寶鑑南山堂版刊行記)  
 59. 引用書目에는 『麻疹會通』으로 되어 있으나, 丁若鏞의 撰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동일한 서적으로 생각된다. (黃度淵 : 醫宗損益(上), 26)  
 60. 黃度淵 : 醫宗損益(上), 21~6  
 61. 總論의 내용으로는 ‘古今元氣不同’, ‘活法爲

- 貴, '防微杜漸', '毒藥爲害', '治病分初中末三法', '逆治', '從治', '醫巧難傳', '醫乃仁術', '醫人膏肓', '破壞病人心', '六不治', '十失', '十要', '延醫', '煎藥法', '薑三棗二'의 17篇 論述이며 인용된 서적으로는 『醫宗必讀』, 『方正學集』, 『史記』, 『勿軒嚴氏史斷』, 『醫門法律』, 『醫學入門』, 『古今醫鑑』, 『醫燈續焰』, 『千金方』, 『幼科發揮』, 『萬病回春』, 『顏氏家訓』 등이며 자신의 의견도 3회 보인다. (黃度淵 : 醫宗損益(上), 27~35)
62. 예를 들어 『醫宗損益』 권6의 「風」門의 「症治」에는 『景岳全書』 「雜證謀·諸風·論東垣中風說」 및 「論丹溪中風說」, 「論治中風」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張介賓 : 상계서, 216~20; 黃度淵, 상계서, 331~2)
63. 黃度淵 : 醫宗損益(上), 9
64. 黃度淵 : 醫宗損益(上), 17~20
65. 黃度淵 : 醫宗損益(下), 377
66. 惜紅煎, 牙皂散, 養中煎, 和胃二陳煎이 각기 2회 인용되고 있다.
67.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5) 『方藥合編』에 미친 영향'을 참고하기 바란다.
68. 김신근 : 상계서, 631
69. 김두중 : 상계서, 457
70. 재편집동의학사전, 343
71. 이러한 편집방식은 『神農本草經』의 上中下 三品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序文에 따르면 淸 汪詒庵의 『本草備要』와 『醫方集解』를 합편한 법에 따랐다고 한다. (김신근 : 韓醫藥書攷, 631)
72. 재편집동의학사전, 343
73. 『醫宗損益』에서는 處方의 인용 표기를 처방명 상단에 『鑑』, 『俗』, 『益』, 『衆』 등으로 표시하였는데, 이 중 『鑑』은 『東醫寶鑑』을 『益』은 『醫宗損益』을 『衆』은 『濟衆新篇』을 『俗』은 俗方을 『局』은 內局方을 말하는 것이다.
74. 歌用七言爲句, 以便誦讀. (黃度淵 : 方藥合編, 서울, 南山堂, 119, 1996)
75. 특히 烟草의 경우는 『濟衆新篇』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서 『方藥合編』이 『濟衆新篇』의 성과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張景岳은 烟草를 「芳草」에 분류하고 無毒하다고 하였으나, 黃度淵은 「毒草」에 분류하여 담배의 해독에 대한 지식이 발전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黃度淵 : 醫宗損益(下), 378, 428)
76.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1908년 刊行, 『韓國醫學史』에는 光武10年(1908) 著, 『韓醫藥書攷』에는 1923년 大邱의 徐炳伍 발행으로 되어 있다. 또한 본 논문에 참고한 版本은 李圭峻이 지은 원문에 門下生 朴熙王生이 懸吐 및 翻譯한 것으로 출판처 未詳이며 刊記의 출판년도가 大正11年(1922)으로 되어 있어 『韓醫藥書攷』의 1923年說과 차이가 있다. 1908년에 李圭峻이 저술한 것을 1922년 혹은 1923년에 출판한 것으로 생각된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 510; 김두중 : 韓國醫學史, 521; 김신근 : 韓醫藥書攷, 518)
77. 김신근 : 韓醫藥書攷, 518
78. 김중환 : 朱丹溪의 滋陰學說과 張介賓·李圭峻의 扶陽學說에 대한 비교연구(II), 東洋醫學 19(3) : 9~10
79. 김두중 : 韓國醫學史, 464에서 재인용
80. 이름만 유사할 뿐 실제 내용은 「新方八陣」이나 「新方八略」과 다르며, 七言의 詩歌 형식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補陣은 「蓼朮茶甘四君子, 芩芍芎歸四物是, 歸脾湯自君子族, 歸眼酸遠神芪木, 六味地黃薯菜, 桂附五味相加減, 佐用澤芩與牧丹, 更名八味腎氣丸.」이라고 되어 있다. (李圭峻 : 醫鑑重磨, 431~2)
81. 「胸乳上統」의 建理湯, 「浮腫脹滿上統」의 壯原湯, 「癰疽諸瘡中統」의 滋腎保元湯, 「癰疽諸瘡中統」의 消痰膏, 「婦人上統」의 加味八珍湯이다.
82.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譯者序에서 “歷代經驗이 有하다하여 世人의 信賴를 受하고, 況又今世醫學을 東醫寶鑑과 方藥篇을 爲法定醫書로 指定하니…”라고 하여 『東醫寶鑑』과 『方藥合編』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李圭峻 : 醫鑑重磨, 譯者序)
83. 김두중 : 韓國醫學史, 459
84. 박성식 : 東醫壽世保元의 學術的 淵源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3.
85. 李濟馬 : 東醫壽世保元, 25~6
86. 『景岳全書』의 何人飲 原文에는 何首烏의 용량이 5錢이 아니라 “自三錢以至一兩, 隨輕重用之”라고 되어 있다. 何首烏의 용량이 차이가 있는 것은 李濟馬가 「新方八陣」을 인용한 다른 醫書나 筆寫本 혹은 巷間의 秘方을

- 통하여 何人飲을 재인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朝鮮後期 醫書에서 何人飲의 用量이 5錢인 것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87. 然, 此一味, 必不可遺棄於補藥中, 而古方何人飲, 用白何首烏五錢, 治瘡病. (李濟馬 : 東醫壽世保元, 73)
88. 張介賓 : 상계서, 1284
89. 三木榮 : 朝鮮醫書志, 101
90. 김남일 : 朝鮮後期の 醫學(韓國韓醫學史 再定立, 제7장),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소, 7,18, 1995.
91. 『廣濟秘芟』은 卷一에 諸中, 諸厥 등의 救急疾患, 卷二에 雜病, 卷三에 婦人과 小兒, 卷四에 單方을 수록하였고, 『濟衆新篇』은 雜病이 內景, 外形보다 앞에 있으며, 『醫鑑重磨』의 「百病總括篇」에서도 外感, 內傷, 內景, 外形, 雜病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상은 目次의 내용은 『東醫寶鑑』과 유사하나 그 순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92. 『醫門寶鑑』은 傳統的인 雜病의 분류체계를 따라 기술되었으며, 『東醫壽世保元』은 四象醫學이라는 獨創의인 이론체계를 따라 서술되어 있다.
93. 我東楊平郡許公, 纂集古今醫方, 著爲『東醫寶鑑』, 庶幾集群賢之大成. 而顧其爲暑, 帙固汗漫, 語多重復, 詳者甚詳, 略者甚略, 世以是病之. (周命新 : 醫門寶鑑(序), 1)
94. 김신근 : 상계서, 441~2
95. 康命吉 : 濟衆新篇, 584
96. 김신근 : 445
97. 이 篇次도 『方藥合編』의 「活套針線」에 이르면 身形과 臟腑보다 六氣가 먼저 언급되며, 胞門에 들어있던 月經病이 婦人門으로 통합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 (黃度淵 : 方藥合編, 67~117)
98. 敢刪繁補闕爲若干卷. (黃度淵 : 醫宗損益(上), 9)  
「凡例」의 내용을 참고하면 損이란 『東醫寶鑑』의 번잡함을 줄였다는 의미이고 益이란 近世의 名言과 古書에서 새로 채록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99. 願身勢殆同景岳之寓意, 非先訓之莫追…… (黃度淵 : 醫宗損益(下), 374)
100. 『醫鑑重磨』가 扶陽論을 제기하여 丹溪의 滋陰說이 위주였던 『東醫寶鑑』을 가장 많이 비판하였고, 『東醫壽世保元』은 “具備傳之”라 하여 許浚의 醫學的인 貢獻을 인정하고 있지만 四象醫學이라는 독자적인 학설로 『東醫寶鑑』을 再編하고 있다. 또한 『醫宗損益』은 『東醫寶鑑』의 體系를 가장 잘 따르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景岳全書』를 비롯한 『東醫寶鑑』 이후의 中國醫學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다.
101. 英祖 25년에 성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소아과 전문서이다. 古方을 그대로 맹종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하였다. (김두중 : 韓國醫學史, 339~40)
102. 正祖 14(1790)년에 李景華가 저술한 것으로, 跋文에 의하면 당시 함경도관찰사 李秉模가 進士 李景華에게 저술하게 한 것이다. (김두중 : 韓國醫學史, 358) 이 책은 어려운 醫論보다는 救急方과 간단한 經驗方을 위주로 서술되었고, 『本草綱目』과 『壽世保元』 등에서도 單方을 채록하였다.(李景華 : 廣濟秘芟, 서울, 여강출판사, 47, 1992) 또한 李景華의 處方은 『醫宗損益』에서도 “李景華方”이라하여 인용되어 있다.
103. 1849년(憲宗15)에 李以斗(1807~1873)가 편찬한 醫書로 天地人의 3권으로 되어 있으며, 그 뒤 1930년 그의 후손인 相俊이 간행하였다. (김신근 : 韓醫藥書攷, 506~8)
104. 朝鮮末期 仁堂 李永春이 臨床經驗에서 얻은 經驗方을 모은 醫書로 1927년 傍孫인 李周榮이 義城에서 간행하였다. (김신근 : 韓醫藥書攷, 727~8)
105. 강만길 : 고쳐쓴한국근대사, 65~6
106. 崔秀漢 : 朝鮮醫籍通考, 298; 김두중 : 韓國醫學史, 356
107. 徐有渠 : 仁濟志(韓國醫學大系 45卷), 18